

엔도 슈사쿠(遠藤周作)의 『철의 항쇄』 론

- 면종복배의 삶과 신앙의 길 -

육근화*

(e-mail: yookgh@dju.kr)

목 차

1. 들어가기
 2. 『철의 항쇄』에 나타난 면종복배의 삶
 3. 『철의 항쇄』에서의 신앙의 길
 4. 작가 엔도 슈사쿠의 메시지
 5. 마무리
-

1. 들어가기

일본의 가톨릭 작가 엔도 슈사쿠는 순수문학과 대중문학을 넘나들며 다양한 장르에 걸쳐 의욕적으로 창작활동을 한 작가이다. 그 중에서도 일본의 전국(戰國) 시대—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 도쿠가와 이에야스(徳川家康) 시대—를 배경으로 한 역사물(소설·평전)도 상당수 발표하였는데 대표작으로는 다음과 같다.¹⁾

『침묵(沈黙)』(1966년), 『철의 항쇄(鐵の首枷)』(1977년), 『총과 십자가(銃

* 대전대학교 일어일문학과 교수, 일본근현대문학전공

1) 본 논문 형식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갖고 작성되었음.

- 『철의 항쇄』의 텍스트로는 遠藤周作 『鐵の首枷—小西行長伝』中央公論社 1977.4 사용.
- 일본어에 관련된 한자는 맨 처음 한글과 한자를 병행하고, 이후 한글만을 표기함.
- 등장인물들은 처음에만 성과 이름을 모두 명기하고, 후에는 성만 표기함. 작품 원문속의 인물명도 성으로 통일하여 명기함. 한글 표기 시, 일본인의 성과 이름을 이해하기 쉽게 띄워서 함.
- 일본 출판사명은 일본한자 그대로 사용함.
- 일본연호는 모두 서기로 표기함.
- 번역은 모두 필자에 의한 것임.

と十字架』(1979년), 『무사(侍)』(1980년), 『왕국으로의 길(王国への道)』(1981년), 『여자의 일생— 일부·기쿠의 경우(女の一生—一部・キクの場合)』(1982년), 『여자의 일생— 이부·사치코의 경우(女の一生—二部・サチ子の場合)』(1982년), 『숙적(宿敵)』(1985년), 『반역(反逆)』(1989년), 『결전 때(決戦の時)』(1991년), 『남자의 일생(男の一生)』(1991년), 『왕의 만가(王の挽歌)』(1992년), 『여자(女)』(1995년) 등이다.

그 중에서도 『철의 항쇄』는, 잡지 「역사와 인물」 1976년 1월호부터 1977년 1월호까지 게재되었으며, 부제로도 명기되었듯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 1558~1660년)에 대한 평전이라 할 수 있다. 필자가 굳이 평전이라 언급은 했으나 고니시에 대한 자료도 연구논문도 거의 없는 상태에서 쓰인 『철의 항쇄』는 한 인물을 조명해 낸 장편소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작품 『철의 항쇄』의 배경이 된 일본의 전국시대 속의 아즈치 모모야마(安土桃山: 1568년~1600년)시대는 일본의 세 장군, 오다, 도요토미, 도쿠가와가 패권을 다투던 시대이다. 고니시는 도요토미의 가신이며 기독교 무장으로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권력의 소용돌이 속에서 면중복배의 삶을 영위하다 세키가 하라 전투에서 도쿠가와에게 패하여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인물이다.

작품의 주인공 고니시가 믿었던 기독교 전래의 계기는, 1543년 규슈의 다네가시마(種子島)에 표류한 포르투갈인으로부터 첩포를 입수하고 그 조작법을 배우게 되었으며 이것이 일본으로서는 남만무역의 시초로서 기독교문화를 수용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이후 일본의 기독교는 가톨릭 예수회의 선교사 프란시스코 자비에르(1506~1552)가 1549년 가고시마(鹿兒島)에 처음 상륙하여 전도를 시작했는데, 그로부터 56년 후인 1605년에는 신자수가 75만 명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러한 전래는 정치적 상황이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수시로 변하여 수용, 성장, 억압, 묵인, 탄압, 금교 과정으로 이어졌다.

일본 기독교의 전래과정은 일본 정치사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 첩포와 같은 남만 무역의 이익을 노린 장군들의 정략적 수용과 그 압력에 의한 영주민들에 대한 하강식 전도, 기독교 전파라는 미명하에 자행된 서구의 식민지 정책과 권력 등이 정치적으로 얽혀있기 때문이다. 종교전파의 3가지 요소를 들자면, 보편적 가치와 권력, 그리고 전파자의 영향력이라 할 수 있으며, 일본 또한 이러한 요소들을 토대로 확산과 탄압을 반복하게 된다.

주인공 고니시를 둘러싼 권력의 세 핵심인물들의 기독교 정책 과정은, 오다(1534~1582년)의 기독교 전래와 수용, 도요토미(1537~1598년)의 기독교 성장과 억압, 도쿠가와(1542~1616년) 정권의 탄압과 금교령으로 요약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작품 『철의 항쇄』에 그려진 고니시의 모순에 찬 면중복배

의 삶을 통하여 그가 기독교 신자로서의 신과의 만남에 이르는 길을 살펴보고, 작가 엔도가 전하고자하는 메시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는 그동안 거의 연구되지 않았던 엔도의 작품을 다룬다는 점에서 작가의 총체적인 작품테마와 문학사적 위치를 이해하는데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2. 『철의 항쇄』에 나타난 면종복배의 삶

『철의 항쇄』는 엔도 작품에 관심을 갖고 있는 독자들은 물론 연구자들에게조차도 거의 연구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그 이유로는 역사의 고증에 근거한 작품이라고 하기에 하나의 장편소설이라고 보기에 애매한 점이 많아서이지는 않았나 싶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작품에 충실하여 엔도가 내세운 주인공 고니시의 주된 삶의 궤적을 살펴봄으로써 엔도가 본 작품에서 추구했던 메시지에 새롭게 접근해 보고자 한다.

『철의 항쇄』에는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 1562~1611년)처럼 완전히 세속적인 인간으로도 다카야마 우콘(高山右近, 1552~1615년)처럼 굳건한 신앙인의 삶으로도 살 수 없었던 고니시의 면종복배의 삶이 적나라하게 그려져 있다.

이러한 고니시의 이중적인 생활모습에 대한 추구는 엔도의 가톨릭 작가로서의 일관된 주제인 <일본에서의 기독교>와 <일본인에 있어서의 신의 존재>에 대한 탐구라 할 수 있겠다.

고니시의 아버지 류사(隆佐)는 사카이(堺)의 거상으로서, 히비야 료케(日比屋了珪)의 소개로 교토에 온 자비에르에게 숙소를 제공한 인물이다.²⁾ 1560년경에 고니시 부자는 세례를 받았다고 전해지나 고니시가 사카이의 어디에서 언제 태어났으며 어떻게 자랐는가에 대한 상세한 자료는 현재 남아있지 않다. 다만, 『繪本太閤記』에는 1579년에 그가 21세였다고 기록되어있으며, 이후 1595년 조선의 웅천성에서 고니시와 협상을 한 조선측 사자가 그가 38세였다고 『선조실록』에서 밝히고 있어, 고니시가 1558년경 태어났다고 추측하고 있을 뿐이다.³⁾

사카이의 거상의 집에서 태어난 고니시는 이 도시의 특색과 상인들의 사고방식과 처세술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된다. 작품의 무대가 된 16세기의 사카이는 영주나 다이묘를 보호하기 위한 일반적인 일본적 도시를 형성한 것

2) 히비야 료케(日比屋了珪)는, 아즈치 모모야마시대의 거상으로서 대표적인 기독교인. 생몰연도는 미상. 가족모두 열심인 기독교인. 1587년 금교령으로 사카이 교회가 파괴된 후 자신의 집을 개방하였으며, 신자들을 위한 병원으로도 사용함. (朝日日本歴史人物事典の解説)

3) 텍스트 遠藤周作 『鉄の首枷』 前掲書 p.11

이 아닌, 상인들로만 이루어진 상인을 위한 도시로서 이들을 대표하는 에고슈(會合衆)가 도시를 운영하는 자치체제를 유지하고 있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전란의 시대에 이러한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데는 나름의 처절한 지혜가 절실했음은 말할 필요가 없겠다.

고니시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회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으며, 이후에도 선교사들과의 교류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1592년 임진왜란 당시 도요토미의 가신으로서 기독교 신자들로만 구성된 부대를 편성하였으며 1593년 선교사 세스페데스 신부가 고니시가 있는 조선의 웅천성을 방문했다는 기록으로도 알 수 있다.⁴⁾

고니시가 속해 있던 도요토미 정권하의 권력세계에서는 쓸모가 있으면 ‘선(善)’이요, 쓸모가 없으면 ‘악(惡)’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므로 권력이라는 힘을 붙잡기 위해서는 권력자의 꼭두각시가 되어야만 했으며, 이는 다름 아닌 진정한 자기 자신을 버리는 일이기도 하여, 고니시가 자기 자신을 지키면서도 권력을 쥌 수 있는 유일한 길로 택한 것은 면종복배의 이중적인 삶의 방식이었다.

작품 『철의 항쇄』에 그려진, 전란 속의 무장으로서 고니시가 고분분투한 ‘면종복배’의 삶의 궤적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 다카야마와 선교사들을 자신의 영토인 고토지마(小豆島)에 숨김.(p.99)

고니시의 면종복배의 생활이 시작된 계기는 무로츠(室津)에서 오르간티노의 순교의 결의를 들은 때였다. 그는 세속의 영달을 꾀하는 자신의 야욕이 신자로서 너무도 부끄러워 울었다고 묘사되어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희노애락의 감정을 얼굴에 내보이지 않는 무사로서의 고니시의 울음은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쏠구쳐 오르는 통한의 분출이었을 것이다.

도요토미는 규슈작전이 끝난 후 그동안 자금과 물자를 대주던 고니시 집안과의 협력관계에서 고압적인 자세로 돌변하여, 선교사들에 대한 추방령과 함께 기독교 무장의 선봉에 있던 다카야마에게 신앙을 택할 것인가 신앙을 버리고 자신의 가신으로 남을 것인가 양자택일 할 것을 강권한다. 도요토미를 위하여 분골쇄신한 다카야마를 한치의 미련도 없이 내쳐버리는 냉혹한 권력 앞에 고니시도 언젠가는 ‘버려질 것’이라는 불안에 싸이게 된다.

세속의 권력도 신앙 안에서의 믿음도 버릴 수 없던 고니시의 최선의 길은, 영주로서의 지위도 가신도 조상 때부터 줄곧 살아온 고향도 초개같이 버린 다카야마와 선교사들을 숨겨주는 일이었다.

4) 遠藤周作 『鉄の首枷』 前掲書 p.193

세스페데스 신부는 고니시의 군영에 머무는 동안 미사를 집전했으며 신자들에게 고백성사를 해주었다고 함.

두 번째, 임진왜란 때 전력질주 싸우는 척을 하며 화평공작을 펼침. (p.131)
기독교도이며 상인의 피를 이어받은 고니시에게 적의를 갖고 있지 않은 조선과의 싸움은 진정으로 마음에 내키지 않는 전쟁이었을 것이다. 이 싸움은 기독교적인 ‘성전’도 상인으로서도 무익한, 다만 도요토미의 헛된 망상을 채워주기 위한 꼭두각시로서의 참전이었다.

고니시는 도요토미의 명령에 따라 제1군단 총지휘관으로서 병사 18000명, 병선 700여척을 쓰시마에 집결시킨다. 그러나 그는 조선 침략에 앞서 승려 겐소(玄蘇)와 5명의 사자를 재차 조선에 보내 「가도입명(假道入明)」, 즉 조선의 길을 빌려 명으로 들어간다는 의사를 전달함으로써, 조선에게는 전의(戰意)가 없음을 밝힌다. 물론 이 내용을 수락할 조선이 아님은 고니시도 알고 있었으나 엔도의 상상력을 빌린다면, 이는 도요토미에 대한 하나의 चे스처이며, 조선측에 정전화평에 대한 교섭의 용의가 있음과 함께 정전화평의 교섭루트는 고니시밖에 없음을 알리기 위함으로 기술하고 있다.

고니시가 부산진에 도착하고 나서도 바로 공격하지 않고 「가도입명」의 문서를 보냈으나 거절당하여 다음날 새벽에 공격을 개시했다고 한다.

세 번째, 중국의 명에 대한 책봉청원서(冊封請願書) 작성 (p.135)

책봉청원서는 고니시와 함께 이 강화조건을 정한 심유경이 고니시 집안의 가신 나이토 조안(内藤如安)을 베이징에 데리고 갔을 때 나이토가 제출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도요토미를 봉하여 일본국왕으로 삼고, 고니시를 포함한 측근 5명을 대도독(大都督:전군을 통솔하는 자)으로 봉하여 줄 것. 특별히 고니시에게는 요요(世)서해도를 더해 주고, 고니시와 입장을 같이 하는 승려 겐소는 일본 선사로 봉하여 줄 것. 도쿠가와와 마에다 등 고니시와 반대파 세력 10명은 대도독보다 못한 아도독(亞都督)에 봉해 줄 것을 청하고 있다.

이 청원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의 유력한 다이묘인 도쿠가와와 마에다보다도 훨씬 지위가 낮은 고니시의 측근들을 높은 지위에 봉해 줄 것과, 자신의 라이벌 제2군단장인 가토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도 없음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도 임진왜란에 대한 상벌을 내린다면 그것은 오로지 권력자인 도요토미의 권한이지 명나라에 청할 하등의 명분은 없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니시는 도요토미의 승인도 받지 않은 채, 책봉청원서를 명나라에 간청하여 실현시키려 했으며, 이러한 사실에서 도요토미의 사후, 권력의 핵심을 자신의 측근들로 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간파할 수 있다.

네 번째, 조선침략에 대한 허위공적을 보고함. (p.141)

고니시는 조선에서의 공적을 9백 명에서 2만 명으로 부풀리고, 대장 5명과 그 외에 천명 이상의 조선인을 무찔렀다고 과장해서 보고했다.

다섯 번째, 상주성의 포로 중에 일본어를 하는 경응순이라는 통역사가 있으며 이 통역사는 경성의 조선국왕으로부터 파견된 자로서 그에 따르면 국왕은 정세가 불리해지면 인질을 일본에 보내고, 명으로 들어가는 길을 안내하겠다고 자청했으며, 자신으로서는 이 요청을 받아들여 경성을 파괴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싶다고 상세히 보고하고 있다. (p.141)

고니시가 거명한 통역사는 조선국왕의 사자가 아닌, 반대로 고니시로부터 강화문서를 의탁받아 조선정부와의 다리역할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자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고니시는 스스로 강화교섭을 조선측에 요구하면서 도요토미에게는 반대로 조선측으로부터 그와 같은 요청이 있다고 말을 바꾼 것이다. 고니시는 북진을 거듭하며 하나의 성을 함락할 때마다 조선측에 화평을 제의했다.

여섯 번째, 고니시는 명의 교섭 책임자 심유경에게 일본의 목적은 명과의 통상과 무역의 부활이지 전쟁이 아님을 주장함.(p.163)

명나라에 통상을 구하는 일은 명측에서 보면 봉공을 간청하는 일이며, 그것을 허락받는다라는 것은 명나라의 하나의 번이 된다는 사실임을 고니시가 이해하고 있었을가에 대해서는 의문에 속하나, 고니시는 허명을 얻는 것보다 실리를 추구하여 표면적인 봉공도 실질적인 무역으로서 상인으로서의 그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고니시는 그 보상으로 대동강 이북은 명의 영토로 이남은 일본령으로 하자고 주장한다. 이러한 심유경과 고니시의 이해득실에 대한 합의로 인하여 결전을 사수하는 조선 측은 회담에서 빠지게 되고, 첫 회담에서 50일간의 휴전을 약속하고 그 사이 심유경이 명으로부터의 회담을 가져오기로 한다.

일곱 번째, 명의 예비 교섭사를 사죄사로 둔갑시킴.(p.183)

고니시의 책봉청원과는 반대로 도요토미의 강화조약 내용은 명의 황녀를 자신의 황비로 보낼 것. 명의 대신과 일본유력 다이묘의 맹세문서를 교환할 것. 조선 4도를 일본에 할양하고, 경성과 다른 4도를 조선에 반환할 것, 조선왕자 1명과 대신 1명을 인질로 일본에 보낼 것 등과 같은 것이었다. 무엇보다 고니시를 가장 곤욕스럽게 하는 것은 도요토미의 고압적 승리자로서의 요구였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지금까지 저 자세로 명나라에게 봉공을 간청한 고니시의 입장과는 정반대였기 때문이다.

명의 입장은 조선국토를 돌려 줄 것, 포로가 된 두 왕자와 가신들을 돌려 줄 것, 도요토미에게 사죄를 받을 것 등으로 결국 고니시가 생각해 낸 것은 명과의 타협안이 아닌 명나라의 예비 교섭사를 마치 일본에 대한 사죄사로 둔갑시켜 정세에 어두운 도요토미에게 보내는 일이었다. 이 사기 공작을 위하여 사절단에 앞서 고니시가 혼자 먼저 나고야로 향하게 되나 그가 목격한 것은 도요토미의 전의가 여전했다는 사실뿐이었다.

여덟 번째, 조선군에게 일본군의 동태를 일일이 알려줌(p.227)

도요토미는 명나라의 사신을 환대하면서 가토에게 인질로 잡혀있던 두 왕자를 돌려줄 것과 동시에 비밀리에 조선의 진주성 공격도 명한다. 이는 명과의 강화조약이 일본군 진지에 대한 정비 시간을 벌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고니시는 곤경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몸부림치게 되고 그가 고뇌 끝에 생각해 낸 것은, 발각되면 고니시 일족이 몰살당할 상상을 초월하는 일본군 동태에 대한 정보 누출이었다.

고니시는 조선 측에 가토의 조선입국 날짜와 위치를 알려줘 살해하려 했고, 이후로도 심유경에게 진주성 공격날짜와 일본군의 방어태세까지 알려 주며 그 내용을 명과 조선 측에 연락하라고까지 지시했다. 그러나 조선측은 이 정보를 믿지 않았다고 한다.

아홉 번째, 고니시는 도요토미의 명에 대한 요구사항 7개와는 전혀 다른, 명 측이 납득할만한 새로운 조약을 만들. (p.186)

고니시는 진주성 공략후, 부산의 심유경을 옹친으로 불러 진퇴양난의 국면 타개를 위해 최후의 수단을 협의하게 되는데, 이번 전쟁은 도요토미가 명으로부터 번주의 왕이라는 칭호를 받기 위해서 일으켰다는 도요토미의 거짓 사죄문을 만들기에 이른다.

이와 같은 고니시의 기상천외한 면중복배의 행적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의 목인 하에 무엇을 위함이었는가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고증할 만한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 그러나 고니시의 행적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도요토미의 사후에 대한 권력 장악이라는 도박에 자신과 일족의 생사여탈을 모두 걸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물론 임진왜란이라는 전쟁이 신자로서의 성전이 아니라는 점도 작용했겠으나 고니시에게 있어서는 신앙에 앞서 속세의 권력이 더 우선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싶다.⁵⁾

고니시의 권력에 대한 면중복배의 삶이 말해주듯 그 또한 전국시대의 소용돌이 속에 태어나고 자란 야심가의 한 사람으로서, 고니시의 진정한 적은 조선도 명나라도 아닌 일본 최고의 권력자인 도요토미였다고 말할 수 있겠다.

5) 遠藤周作 『鉄の首枷』 前掲書 p.194

신자인 고니시도 조선의 남녀들을 포로로 잡아 자신의 영지인 우도(宇土) 로 보내 전쟁 착출로 부족해진 노동력을 보충한다. 그 중에서도 조선귀족의 딸인 오다 쥬리아를 부인의 시종으로 보내고, 쓰시마 영주의 부인이 된 딸 마리아에게도 조선 귀족의 자제 2명을 보냈으나, 마리아가 이들을 가엽게 여겨 한 명을 신학교에 입학시켰다고 전해진다.

3. 『철의 항쇄』에서의 신앙의 길

본 장에서는 2장에서 살펴본 고니시의 면중복배의 삶을 통하여 그가 신앙에 이르는 길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기독교의 신앙이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듯이 개종, 혹은 세례를 받은 날부터 일거에 마음의 평안이나 신에 대한 확신이 얻어지는 것이 아닌, 대부분의 경우 오랜 인생의 축적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 신은 그 사람의 신앙이 영혼의 밑바닥까지 뿌리를 내릴 때까지 햇볕에 쪼이고 비를 뿌리며 다양한 인생과정을 겪게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의 삶이란 그저 흘러가는 것이 아닌, 오랜 갈등과 번뇌, 순간의 기쁨 속에서 채움과 비움, 나눔이 반복되는 여정이라 할 수 있겠다.

고니시 류사는 그의 처자식과 세례를 받았다. 고니시가 이때 아버지와 세례를 받았다고 해도, 그 연령으로 봐서 그가 이 이국의 종교를 진심으로 이해했다고는 도저히 나로서는 생각할 수 없다. 아버지가 편의적인 개종자라 한다면, 자식은 그 아버지나 어머니를 따라 세례를 받은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서구의 기독교의 가정에서 자란 아이와 같이 그는 자신의 사상적인 고뇌에서 이 종교에 귀의한 것이 아닌, 자신의 인생적 해결을 이 기독교에서 찾아낸 것도 아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시기, 진정한 의미에서의 신앙은 이윽고 그것이 참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날까지 고니시에게는 없었다.

(pp.20-21)

고니시는 부모와 함께 세례명 아우구스티누스로 유아세례를 받으며 신과의 관련을 맺게 된다. 상인으로서 무역로를 찾던 아버지로 인한 편의적인 세례는 작가 엔도의 유아세례와 깊은 연관성을 갖는다. 엔도 또한 이혼으로 상처를 입은 어머니의 보이지 않는 강압에 의해 신과의 만남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엔도가 자신의 일생을 걸고 자신이 납득할 수 있는 예수를 탐구했듯, 고니시 또한 신과의 연관이 그의 인생에 어떤 의미를 지닐지는 이 때 전혀 알 수 없었다.

어떤 세속의 권력 앞에서도 신앙을 굽히지 않은 다카야마의 강한 믿음은 고니시에게 충격과 불안, 심적인 동요를 가져왔음은 작품의 다음 문장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그 후의 고니시의 행동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우리들에게도 이 유아세례를 받고 다카야마와 같은 강렬한 신앙을 가질 수 없었던 남자의 성격과

이때의 두려움, 고뇌와 같은 것을 읽어낼 수 있다. 지금까지 써왔듯이 고니시에게는 신을 거의 문제로 삼지 않았던 오랜 시기가 있었으나, 신은 언제나 그를 문제로 삼고 있었다. 신은 이 다카야마 추방을 기반으로 고니시에게도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p.89)

작가 엔도의 “한번 신을 접한 사람은, 그 사람이 신에 무관심해도 신은 결코 그의 걸을 떠나지 않는다.”⁶⁾는 말처럼, 권력에 대한 야욕에 편승된 고니시의 삶 속에서의 신앙의 길은 고니시가 의식하든 안하든 ‘세속 속의 철의 항쇄’가 되어 그의 인생여정 속에 함께 했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제2장에서 살펴 보았듯이 일본의 무장으로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그의 행적이 이를 증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철의 항쇄』를 읽다보면 고니시에게 성전(聖戰)이란 어떤 의미를 지녔을까를 생각하게 한다. 교회에서 말하는 성전이란 이교도들에 대한 기독교도의 전쟁으로서 유일신의 정의를 구현하는 전쟁을 의미한다. 일본 전란의 시대에도 다카야마는 자신의 영토에 ‘신의 나라’를 구현하려 했으며 도요토미 정권에서도 그의 싸움은 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싸움이기도 했다.⁷⁾

그러나 고니시의 싸움은 오랜 시기 동안 성전이기보다는 오로지 자신의 영달을 위한 싸움이었음을 그의 삶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고니시는 가토의 원군으로 아마쿠사(天草)의 기독교 농민들의 봉기 때에 무력으로 진압에 가담했으며, 임진왜란 때 신자 오다 유리야와 농민들을 포함한 5만여 명을 포로로 자신의 영지로 보내기도 했다. 또한 도요토미의 기독교박해가 시작되었을 때는 “선교사들에게 차가웠다”고 기록되어 있음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그렇다면 고니시는 언제 신과의 진정한 만남을 생각하게 되었을까. 작품 속에서는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부심하던 고니시가 오르간티노 신부와 격론을 벌이면서 신부가 순교를 각오하고 있음을 밝혔을 때로 묘사되어 있다. 신부의 불퇴전의 용기에 고니시는 ‘울기 시작했으며 신부에게 고백성사를 구했다’고 기독교측 자료에 기록되어 있다.

무로쓰(室津)에서 고니시가 오르간티노의 결의 앞에서 울은 사실은 그의 생애의 전환기가 되었다. 그 정확한 날짜는 우리들에게는 알 수 없으나 1587년의 음력 6월 하순부터 7월 상순이었음은 확실하다. 오랫동안 그는 신을 별로

6) 遠藤周作 『鉄の首枷』 前掲書 p.21

7) 片岡弥吉(1991) 『日本キリシタン殉教』 時事通信社 p.6에 다카야마 관련 페이지 수록되어 있음.
다카야마 우콘(高山右近, 1552~1615년)은, 아즈치 모모야마시대의 다이묘로서 기독교신자. 세례명 주스트. 금교령에 의해 추방되어 마닐라에서 죽음.

문제로 삼지 않았다. 그의 세례는 어렸을 때이고, 그 동기도 공리적인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날부터, 진지하게 신에 관한 일을 생각하기 시작하게 된다. (p.98)

오르간티노의 격렬한 신앙고백은, 유아세례 때부터 지금까지 신앙의 문제를 그다지 염두에 두지 않던 고니시의 삶에 일대의 전환을 가져오게 한다. 이후, 그의 삶은 더욱더 철저한 면중복배의 이중의 삶의 방식을 취하여, 다카야마와 오르간티노 신부를 고토지마(小豆島)에 숨기게 되면서, 표면적으로는 도요토미에게 복종하는 척을 하며 마음으로는 신앙을 지키는 방법을 모색하게 했다.

이제야말로 철의 항쇄를 벗을 때가 왔다. 그는 이제 오직 한 가지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아무것도 보지 않는다. 그의 철의 항쇄이었던 현세에서의 야망도 야심도 사라졌다. 지금까지 늘 소중하게 몸에 지니고 다니던 그리스도와 성모의 그림(이것은 카롤5세 왕의 여동생인 포르투갈 왕비로부터의 선물)을 고니시는 양손으로 받들어, 세 번, 머리 위로 높이 들어 올려 「해맑은 얼굴로 잠시 천상을 양 눈으로 응시하고 나서 성화를 바라보고」 참수하는 사람에게 목을 내밀었다. 참수하는 사람은 칼로 그 목을 앞으로 떨어뜨렸다. (p.262)

이와 같은 고니시의 죽음에 대한 묘사는 지금까지 면중복배의 약자로서의 삶을 벗어나 신앙의 강자로서의 의연한 죽음을 상징하고 있다. 고니시가 일본 무장으로서 자결하지 않고 온갖 수모와 굴욕을 참아가며 참수 당한 것은 그가 믿는 신 예수가 최후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진 것처럼, 가톨릭 신자로서 그 또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십자가를 마지막 순간까지 짊어졌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작품 『철의 항쇄』는 다음과 같은 문장을 마지막으로 하고 있어서, 그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된다.

40여년 간의 그의 생애는 이렇게 막을 내렸다. 그는 아마도 유아세례에 의해서 신과 관계를 맺게 되었으나, 그 과반생에서 그의 신앙은 아직 다카야마와 같이 참된 신앙이라 말할 수 없었다. 전국 시대에 태어난 고니시는 다른 영웅들과 똑같이 야심이 지나치게 컸다. 야심은 그에게 있어서 신보다 중요했다. 그렇지만 그가 신을 문제로 삼지 않을 때에도, 신은 그를 문제로 삼고 있었다. 「신은 우리들 인생의 모든 것을, 우리들 인생의 좋은 것도 악도, 기쁨도 좌절까지도 이용하여, 마지막에는 구원의 길로 이르게 하신다」. 이 귀에

익은 말을 고니시의 생애 속에서 우리들도 발견할 수 있다. 신은 야망이라는 고니시의 항쇄를 사용하여, 마지막에는 「그를 사로잡으셨기」 때문이다. 한번 신과 연관을 맺은 자는, 신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다. 고니시도 또한 그러했다. (p.264)

고니시는 마지막 순간 신부의 고백성사를 청했으나 거절당하고, ‘현세에 있어서 모든 것은 변전무상(變轉無常)하며, 변하지 않는 것은 어느 하나 찾아볼 수 없다’는 말을 남겼다. 현세의 모든 영달의 무상함 속에 ‘신앙 속의 철의 항쇄’가 아닌, ‘권력 속의 철의 항쇄’를 벗어버림으로써 고니시가 찾은 참 신앙안의 ‘동반자 예수’는 그의 진정한 자아 속에 뿌리 내렸다고 생각된다.

4. 작가 엔도 슈사쿠의 메시지

『철의 항쇄』에서의 작가 엔도가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과연 무엇이였을까. 본 장에서는 엔도의 다른 작품들과의 비교 고찰을 통하여 『철의 항쇄』에서의 엔도의 메시지에 접근해 보고자 한다.

첫 번째, 『침묵』에서의 로드리고와 기치지로의 삶

엔도의 대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침묵』은, 도쿠가와시대의 심한 탄압을 배경으로, 포교의 꿈과 이상을 품고 일본에 건너 온 포르투갈의 젊은 사제 세바스찬 로드리고가 험난한 여정 속에 결국 배교에 이르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로드리고는 일찍이 포르투갈의 수도원에서 웨라이라에게 배웠으며, 지금은 일본에서 배교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스승에 대한 소문을, 사제로서의 자신의 삶을 걸고 확인하려 한다.

로드리고가 이상으로 늘 마음에 그리고 있는 예수는 산상수훈에서 흔들림 없는 신념으로 열변을 토하는 강한 이미지의 신의 모습이였다. 8) 그러나 연이은 일본인 신자들과 동료사제들의 처참한 죽음을 대하며, 로드리고도 고문받는 신자들을 위해 자신의 스승 웨라이라처럼 배교하게 된다.

로드리고는 웨라이라의 배교 과정 속의 고뇌와 그의 배교가 신자들을 위함이었음을 깨닫게 되면서, 자신이 지금까지 깨닫지 못하고 있던 사제로서의 우울감을 버리게 된다. 로드리고의 배교 과정 속에 그려진 예수상은 부정적인 엄

8) 遠藤周作(1978) 『沈黙』 新潮現代文学41 p.18

「< 내 양들을 보살피라, 내 양들을 보살피라, 내 양들을 보살피라>」라고 세 번, 명령하실 때의 격려하는 듯한 용감하고 힘있는 얼굴이였다.」

부의 모습에서 인간의 모든 삶 속에 함께 하는 모성적인 사랑의 신의 모습으로 변해 간다.

「(밟아도 좋다. 너의 발은 지금 아프겠지. 나의 얼굴을 밟는 인간들과 똑같이 아플 것이야. 그렇지만 그 발의 아픔만으로도 충분해. 나는 너희들의 그 아픔과 괴로움을 나누어 갖겠어. 그 때문에 나는 존재하는 거니까)」

「주여. 당신이 언제나 침묵하고 있는 것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침묵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 함께 괴로워하고 있었는데」⁹⁾

『침묵』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상으로 기치지로를 들 수 있다. 그는 관리들의 협박과 고문 속에 친척과 마을 사람들, 신부까지도 밀고하고 자신의 밀고 때문에 잡혀 고문받는 신부를 찾아가 고백성사를 간청하는 약한 인간상을 상징하고 있다.

「강한 자도 약한 자도 없는 것이야. 강한 자보다 약한 자가 괴로워하지 않았다고 누가 단언할 수 있겠는가」¹⁰⁾

『침묵』에서는 로드리고와 기치지로의 세속 속의 배교가 진정한 신앙 속의 배교가 아님을 역설하고 있으며, 인간의 죄에 대해서도 그 약함과 괴로움에 공감하고 위로해주는 ‘용서의 사랑의 신’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현실의 삶에서는 권력자들 앞에서 후미에(踏繪)를 밟고 사제와 신자라는 모든 종교적인 증거들을 부정하고 배교를 하나 역사 기록에 의하면 그들은 유배당한 곳에서 삶이 다하는 날까지 신앙을 증거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작품 『침묵』 속의 등장인물인 로드리고와 기치지로, 웨라이라까지 그들은 현실세계에서의 교회와 예수가 아닌 ‘내 안의 나의 예수’로서의 면종복배의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다.

『철의 항쇄』의 고니시와의 상이점은 면종복배의 삶에 대한 양상이라 할 수 있는데, 『침묵』에서는 속세의 제도권 속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한 면종복배이며, 『철의 항쇄』에서는 속세의 권력을 쥐기 위한 면종복배라는 점이다. 두 작품의 공통점이라 한다면, 양상을 달리하는 면종복배의 삶을 통하여, 약한 신자로서의 고통과 고뇌를 감싸주며 죽음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동행하는 따뜻한 신의 모습을 부각시켰다는 점과 역사의 뒤편길에 사라진 인물을 재조명하며 그들에게도 역사 속의 인물로, 신앙인으로서의 복권을 시도했다는 점을 들

9) 遠藤周作 『沈黙』 前掲書 p.147

10) 遠藤周作 『沈黙』 前掲書 p.147

수 있다.

두 번째, 『총과 십자가』에서의 베드로 기베의 삶

작품 『총과 십자가』는 엔도의 작품으로서는 드물게 베드로 기베라는 신앙의 강자를 주인공으로 삼고 있다. 베드로 기베는 13세인 1600년 아리마 신학교에 입학하여 1606년에 졸업한 후 사제가 아닌, 동숙(同宿)으로서 8년간 포교에 임하다 도쿠가와와 금교령과 함께 시행된 해외추방령에 의해 마카오로 가게 된다. 그는 마카오에서도 사제로서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홀홀단신 험난한 여정을 거쳐 로마로 가게 되는데, 그가 신부의 자격을 얻은 것은 1629년으로 일본에서 추방된지 16년이 지난 33세 때였다.

엔도가 『총과 십자가』에서 주목한 것은, 인간이 만든 제도로서의 기독교와 신앙의 본질과의 괴리이며, 다른 한 가지는 강한 신념을 지닌 청년사제 속의 속세적인 야망과 약한 신앙적인 측면이라 할 수 있다.

속세 속의 기독교에 대한 거리감은 작가 엔도가 프랑스 유학에서 ‘백인을 위한 백인만의 종교’로서 절실히 체험하여 이후 ‘일본에서의 기독교’와 ‘일본인에 있어서의 신의 존재’를 탐구하기에 이른다.

본 논문에서 『철의 항쇄』와 관련하여 고찰하고 싶은 내용은 두 번째로, 기베의 표면적인 강한 신념에 찬 행동 속에 숨겨진 내면의 속된 야망과 신앙적인 약자의 모습을 부각시켰다는 점이다.

「주여, 제가 그들을 일시적으로, 저버리는 일을 용서해 주십시오. 사제가 되고 싶은 것은 제 개인적인 야심을 위해서가 아니다. 그들을 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다시, 이 일본으로 반드시 돌아가겠습니다.」 11)

베드로는 박해의 땅 일본을 버리고 마카오로 떠나며 위와 같이 다짐의 기도를 한다. 인간의 마음이란 단순하게 하나의 신념으로 모아지는 것이 아니겠으나 베드로의 기도 속에 진정으로 필요했던 것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변명이 아니었나 싶다. 왜냐하면, 도쿠가와와 심한 탄압 속에서도 46명이나 되는 선교사와 수도사들이 자신의 안전보다도 목자도 없이 남겨지는 신자들의 안위를 염려하여 일본에 남았기 때문이다.

세속을 버리고 신앙의 세계에서 살아가려는 그들에게도 그들 나름의 세속적인 야심은 있었다. 그것은 선교사들과 같이 예수회에 들어가, 성직자가 되고 싶다는 야심이다. 확실히 성직자로서 일생을 신에게 바침과 동시

11) 遠藤周作(1978) 『銃と十字架』 中央公論社

에,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싶다는 속된 바람도, 이들 신학교 졸업생의 종교심에 섞여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이 시기의 베드로 기베 또한 그 중의 한 사람이었다.¹²⁾

엔도가 『총과 십자가』의 사료로서 쓴 치스릭 교수의 저서 『베드로 카스 이 기베』에는, 베드로에 대한 속된 야망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위 문장에서 작가 엔도의 자의적인 의도로서 강자 속의 약자의 측면을 강조했음을 알 수 있다.

유다가 될 가능성은 이 무렵, 모든 선교사에게도 신도에게도 있었다. 그 가능성에 이길 수 있다고는 누구도 자신을 갖고 말할 수 없었다. 그리고 신은 침묵하고 있다. 침묵하고 있듯이 보였다.

베드로가 마카오로 피난했을 당시 신학교의 선배나 외국인 선교사들이 ‘신자들을 버리고 온 양심의 가책’으로 ‘개인의 안전 속의 신앙에 대한 보장보다도 고통 속의 연대’를 찾아 고립 속에 박해를 받고 있는 일본인 신자들에게 돌아간 사실을 생각하면 베드로의 내면의 갈등을 짐작할 수 있겠다.

이러한 베드로의 약한 측면은 작품 『총과 십자가』의 여러 부분 - 베드로가 신부가 된 후 일본으로 바로 귀국하지 않고 아유타야로 간 것, 베드로의 서간 속에 일본의 박해 상황이 좋아졌거나 풀렸을 것이라는 기대감, 순교에 대한 공포와 고뇌에 대한 묘사 등 - 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철의 항쇄』와의 상이점과 공통점을 요약해 본다면, 『총과 십자가』에서의 베드로는 처음부터 표면적인 신앙의 강자로 묘사되었으나 고니시는 면중복배의 삶의 과정에서 약한 신자상으로 묘사되었다는 점, 내면의 세계에서는 베드로의 강한 신자상의 약한 측면을, 고니시의 약한 신자상의 강한 측면을 묘사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공통점으로는 현세의 권력이든 현세 속의 신앙 안에서 권력이든 두 작품의 주인공 모두 권력의 추구를 위해 세상과의 타협을 위한 ‘면중복배’의 삶의 자세를 강조하여 묘사했다는 점, 신앙이란 하루아침에 발아되는 것이 아닌 오랜 세월의 고통과 고뇌의 축적 속에 진정한 믿음으로 성장해 간다는 점, 신은 신과 한 번 맺은 관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다하는 날까지 늘 함께 동행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겠다.

세 번째, 『무사』에서의 하세쿠라와 베라스코의 삶

작품 『무사』는, 도쿠가와 막부의 종교 탄압을 강화한 전후를 배경으로,

12) 遠藤周作 『銃と十字架』 前掲書 p.85

역사의 비극적인 주인공 하세쿠라를 주인공으로 하고 있다. 하세쿠라는 주군인 다테 마사무네의 멕시코와의 무역을 강화한다는 명목 하에 일본의 사절로서 태평양을 건너게 된다. 사절단에 동행한 베라스코 신부는 일본에서의 대사제라는 정치적 야심을 갖고 있어 그의 주도면밀한 계획에 의해 하세쿠라는 이해할 수도 없는 예수를 접하게 된다.

십자가에 아주 여윈 남자의 나신이 새겨져 있다. 힘없이 양손을 벌리고 힘없이 고개를 떨군 그 남자를 보면서 무사는 베라스코를 비롯하여 남만인 모두가 이런 인간을 「주」라고 부르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다. 무사에게 있어서 주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영주뿐이었다. 그러나 영주는 이와 같이 초라한 존재는 아니었으며, 무기력한 분일리는 없었다. 이 말라빠진 자를 숭배하는 것만으로도 무사에게는 기독교가 기괴하기 짝이 없는 사교처럼 생각되었다.¹³⁾

하세쿠라는 주군으로부터 주어진 사명을 달성하기 위한 스페인 왕과의 알현을 조건으로 ‘기괴하기 짝이 없는 예수’를, ‘언제가는 잊혀지고 아무런 의미도 갖지 않을 것이라는 자위 속에’ 형식상의 세례를 받게 된다. 이후 하세쿠라는 로마교황청의 사절단으로까지 파견되나, 7년이라는 긴 세월 속에 아무런 성과 없이 돌아온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막부의 탄압 속에 사교의 신도로서의 냉대와 처형이었다.

왜 저 나라(유럽)에서는 어느 집이나 그 남자(예수)의 가련한 상이 걸려있는가, 알 수 있을 것 같다. 인간 마음의 어딘가에는, 생애, 함께 있어주는 존재, 배반하지 않는 존재, 떠나지 않는 존재 - 가령 그것이 기력이 쇠진한 개라도 좋다 - 에 대한 염원이 있다. 그 남자는 인간에게 있어서 그와 같은 가련한 개가 되어 주었다.¹⁴⁾

위 문장은 하세쿠라의 심복 요조와의 대화 속에서 하세쿠라의 진심어린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장면이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오직 주군만을 위한 절대 복종의 무사 하세쿠라에게, 주군으로부터도 배신당한 이후 비로소 형식적으로 받은 세례 속의 예수가 실재적인 존재감을 갖고 형상화되어 마음깊이 자리 잡게 된다.

「여기서부터는 그 분이 동행하십시오」

13) 遠藤周作(1990) 『侍』 新潮社 p.118

14) 遠藤周作 『侍』 前掲書 pp.377-378

돌연, 배후에서 요조의 쥐어짜내는 듯한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서부터는 …… 그분이, 모십니다」

무사는 멈춰 서서, 뒤돌아보며 크게 끄덕였다. 그리고 검게 빛나는 차디찬 복도를, 그의 여정의 마지막을 향하여 걸어 나갔다.¹⁵⁾

세속적인 믿음으로부터 모두 배신당한 하세쿠라에게 남은 것은, 힘없이 양손을 벌리고 힘없이 고개를 떨군 십자가상의 예수였다. 하세쿠라에게 예수는 ‘생애, 함께 있어주는 존재, 배반하지 않는 존재, 떠나지 않는 존재’로서 고뇌에 찬 그의 생애를 이해하고 위로해주는 동반자로서 자리잡게 된다.

사제로서 세속적인 야망에 불타던 베라스코도 마지막 순간에는 모든 속세의 야망을 버리고 신자들을 위한 한 알의 밀알이 되기 위하여 박해 속의 일본으로 잠입한다. 그는 체포되어 화형을 당하게 되는데 불타오르는 화염 속에서 ‘살았다 …… 나는 ……’ 이라는 일성을 남기고 숨을 거둔다.

이 최후의 한 마디는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시사한다. 죽음을 통한 생명의 탄생은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며, 백인 사제로서 일본이라는 동양의 범신론의 정신세계 속에 유일신 예수의 기독교가 뿌리내렸다는 의미도 함축하고 있다고 하겠다.

본 논문의 작품 『철의 향쇄』와의 상이점은, 일본 정신세계의 근간을 이루는 뿌리깊은 무사로서의 하세쿠라와 상인 기질의 무사 고니시라는 내면의 세계의 다른 출발점, 하세쿠라의 주군의 사명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세례와 고니시의 부모에 의한 유아세례를 들 수 있다. 두 작품의 공통점으로는, 어떤 상황하에서 어떤 이유로 신을 접하든 한 번 예수와 관계를 맺은 다음에는 신으로부터 떠날 수 없다는 점, 신앙이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서서히 깊이 내면의 세계에 뿌리내린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작품을 통하여 엔도는, 세속 속의 우리들은 신을 잊고 문제로 삼지 않아도 한 번 신과 관계를 맺은 이상 신은 언제나 우리 곁에서 참 신앙인으로서의 귀환을 늘 기다리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진정한 신과의 만남이란 어떤 의미를 지닐까. 이는 속세에 사는 우리들이 신에게로 향한 삶의 목표로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고니시가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세속적인 것에서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를 추구하는 신앙안의 신과의 만남, 신을 향한 믿음으로 신이 가장 전하고자 했던 포용력을 지닌 사랑으로의 변화를 통하여 속세인인 우리들은 한 걸음 더 가까이 신께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15) 遠藤周作 『侍』 前掲書 p.405

이러한 의미에서 고니시의 마지막 길까지 동행한 신의 모습에서, 엔도가 일생을 두고 추구했던 ‘약한 우리들에 대한 사랑의 모성적인 신 동반자 예수’의 모습을 『철의 항쇄』에서도 찾아볼 수 있겠다.

5. 마무리

본 논문의 목적은 작품 『철의 항쇄』에 대한 역사적 고증으로서의 옳고 그름을 밝힌 것이 아닌, 소설의 한 장르로서의 『철의 항쇄』에 대한 고찰임을 밝혀둔다.

본 논문에서는 작품 『철의 항쇄』에 그려진 고니시의 면중복배에 대한 행적과 진정한 자아와의 만남을 통하여 신앙에 이르는 길을 살펴보았으며, 엔도의 다른 작품 『침묵』 『총과 십자가』 『무사』와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철의 항쇄』에서의 엔도의 메시지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해 보았다.

이러한 고찰을 통하여 『철의 항쇄』에서의 작가의 의도는 다음 4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신은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닌 한번 맺은 관계를 통하여 우리 인간이 의식을 하고 있든 못하든 우리 삶 속의 슬픔과 기쁨, 고통과 고뇌 속에 늘 함께 동행한다는 점.

둘째, 신앙이란 하루아침에 받아되는 것이 아닌 오랜 세월의 고통과 고뇌의 축적 속에 진정한 믿음으로 성장해 간다는 점.

셋째, 세속 속에서 면중복배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약한 우리들의 삶을 위로하고 포용하는 사랑의 신의 모습을 그려냈다는 점.

넷째,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진 패배자로서의 고니시의 삶을 재조명함으로써 역사적인 인물로, 신앙인으로서의 복권을 시도하여 구원의 가능성을 제시한 점이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사건들의 의미는 우리의 삶이 다하는 날까지 아무도 알 수 없을지 모르나, ‘우리의 삶에서 무엇 하나 헛된 것은 없다’는 작가 엔도의 말처럼, 『철의 항쇄』를 통하여 무심하고 무의미해 보이는 삶의 세세한 부분에까지 신의 손길과 의미가 담겨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철의 항쇄』의 주인공 고니시의 삶도 오랫동안 신앙에 눈뜨지 못한 채 도요토미 권력 하에서 야망에 질주하는 ‘스스로가 채운 항쇄의 삶’이었다고 할 수 있다. 기독교금지령 이후 시작된 고니시의 면중복배의 이중적인 삶은 좌절과 굴곡으로 점철되었으며 무상한 삶의 끝자락에 진정한 신과의 만남을 통하

여 마지막에는 굳건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된다.

결국, 『철의 항쇄』는 ‘신은 우리들, 인생의 모든 것을, 우리들 인생의 선한 것도 악도, 기쁨도 좌절까지도 이용하여, 마지막에는 구원의 길에 이르게 하신다. 신은 야망이라는 고니시의 항쇄를 이용하여, 최후에는 그를 사로잡으셨기 때문이다. 한 번, 신을 접한 자는 신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다’는 강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하겠다.

【参考文献】

- 텍스트: 遠藤周作(1977) 『鉄の首枷—小西行長伝』 中央公論社
- 遠藤周作(1978) 『銃と十字架』 中央公論社 p.85, pp.91-92
- 遠藤周作(1978) 『沈黙』 新潮現代文学41 p.18 p.147
- 遠藤周作(1990) 『侍』 新潮社 p.118, pp.377-378, 405
- 遠藤周作(2000) 『遠藤周作文学全集 第十卷 評伝1』 新潮社 pp.342-347
- 片岡弥吉(1991) 『日本キリシタン殉教し』 時事通信社 p.6
- 필자논문(1993) 「『침묵』론」 한국일본학회 「일본학보」 제31집
- 필자논문(1999) 「『무사』론」 한국일본문화학회 「일본문화학보」 제7집
- 필자논문(2001) 「『총과 십자가』론」 한국일본학회 「일본학보」 제49집
- 江藤淳(1991) 『群像 日本の作家22 遠藤周作』 小学館 pp.195-204
- 広石廉二(1991) 『遠藤周作の縦糸』 朝文社 pp.5-61
- 笠井秋生・玉置邦雄(2000) 『作品論 遠藤周作』 双文出版社 pp.204-218
- 末国善己(2006) 「遠藤周作の歴史認識をめぐって」 国文学解釈と鑑賞 pp.133-140
- <http://www.yahoo.co.jp/>
- <http://ja.wikipedia.org/>

要 旨

本論文の目的は、作品『鉄の首枷』について歴史的考証を加え、正しいか正しくないかを明らかにすることではなく、小説の一領域としての『鉄の首枷』についての考察であることを明らかにしておきたい。

本論文では、作品『鉄の首枷』に描かれた小西行長の面従腹背の経緯と、真の自我との出会いを通じて信仰に至る道程を明らかにし、遠藤の別の作品『沈黙』、『銃と十字架』、『侍』との比較分析を通じて、『鉄の首枷』における遠藤のメッセージに対し新しい接近を試みた。

こうした考察を通して、『鉄の首枷』における作家の意図は次の4点に整理してみることができた。

第一に、神は沈黙しているのではなく、一度結んだ関係を通じて、私たち人間が意識しようといまいと、私たちの人生における悲しみと喜び、苦痛と苦悩の中に常に共に歩んでいるという点。

第二に、信仰というものは一日で芽生えるものではなく、永い歳月の苦痛と苦悩の蓄積の中で真の信仰に育って行くという点。

第三に、世俗の中で面従腹背の人生を生きていくほかない弱い私たちの人生を慰め包容する愛の神の姿を描き出したという点。

第四に、歴史の裏道に消えて行った敗北者としての小西行長の人生に再び光を当てることによって、歴史的な人物として、信仰の人としての復権を試み、救いの可能性を提示した点である。

私たちの生活の中で生ずるさまざまな出来事の意味は、私たちの生が尽きる日まで誰も分からないかもしれないが、‘私たちの人生には何一つ無駄なものはない’という作家遠藤の言葉のように、『鉄の首枷』を通じて無関係で無意味に見える人生の詳細な部分にまで神の手助けと意味が含まれているということがわかる。

『鉄の首枷』の主人公小西行長の人生も、永らく信仰に目を向けないまま豊臣権力下で野望に疾走する‘自らがはめた首枷の人生’だったと言える。キリスト教禁止令以後始まった小西の面従腹背の二重人生は、挫折と屈折で綴られ、無常な人生の終わりに真の神との出会いを通じて最後には堅固な信仰の人としてよみがえることになる。

結局、『鉄の首枷』は‘神は我々の人生のすべてを、我々の人生の良きことも悪も、喜びも挫折をも利用して、最後には救いの道に至らせたもう。神は野望という行長の首枷を使って、最後には彼を捕えたもうた。一度、神とまじわった者は、神から逃げることはできない’という強いメッセージを伝えていると言えよう。

キーワード：小西行長、面従腹背、信仰、キリスト教、戦国時代

투 고 : 2013. 5. 31
1차 심사 : 2013. 6. 15
2차 심사 : 2013. 7. 6